#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보도자료

| | | |
|---|---|---|
| **배포일** | 2026. 10. 12.(월)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002 |
| **보도일** | 2026. 10. 12.(월) | www.bcpf.or.kr |
| **총매수** | 2매 | TEL. 02-6123-4300~5 |

## 청년다큐멘터리감독지원사업 ‘첫 단추 프로젝트’ 1기 김혜이 감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상 수상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주최·공영홈쇼핑 후원 ‘첫 단추 프로젝트’ 1기 청년 감독
- 정신요양시설 여성의 자립 과정 담은 <낮에 뜬 달>로 한국경쟁 장편 부문 대상



▲ 다큐멘터리 <낮에 뜬 달> 포스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공영홈쇼핑이 후원하는 청년다큐멘터리 감독지원사업 ‘첫 단추 프로젝트’ 1기 김혜이 감독이 다큐멘터리 <낮에 뜬 달>로 2026년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1천만 원이다.

<낮에 뜬 달>은 접근 가능성 면에서는 북극이나 심해보다 더 어려운 곳인 정신요양원 내부를 담고 있다. 여성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어서 주인공은 여성들이다. 자신을 바리스타라 소개하는 은주 씨, 시 쓰는 인숙 씨, 혼자 살고 싶어서 시설 나갈 날을 기다리는 한나 씨 등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자기소개부터 언제부터 요양원에 살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대답한다.

은주 씨는 마흔셋에 처음 요양원 밖으로 나와 자립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배척과 차별, 고립 속에서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마주하는 은주의 모습을 통해 자립의 의미와 요양원 시설 밖 삶의 현실을 섬세하게 조명한 작품이다.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편 부문에 오른 9편의 작품 가운데 김혜이 감독의 <낮에 뜬 달>과 박소현 감독의 <수국> 등 2편이 '첫 단추 프로젝트' 제작지원작으로 지원작들의 경쟁 부문 진출과 대상 수상은 청년 감독과 작품을 발굴해 온 '첫 단추 프로젝트' 만의 성과와 경쟁력을 보여준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첫 단추 프로젝트'는 가능성과 역량을 갖춘 청년 다큐멘터리 감독의 기획안을 발굴해 트레일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작지원비와 함께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의 개별 멘토링과 역량 강화 Docs 워크숍을 운영하며, 청년 감독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회와 시대를 기록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국내외 영화제 출품과 상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 강순태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김혜이 감독이 오랜 시간 피사체와 진솔하게 관계를 맺으며 완성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년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로 창작 여정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그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끝.